

# 중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어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음운론적 오류분석 연구\*

이현구 · 윤병남  
(나사렛대학교)

Lee, Hyun Gu & Yoon, Byung Nam. 2007. **Phonological Error Analysis through English Dictation Task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4), 123-14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requent phonological err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English dictation tasks and to suggest a more systematic, efficient and strategic way of teaching listening. Although 102 middle school students took part in this study, only 81 students were selected as qualified data. Their collected err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5 phonological criteria: sound discrimination, linking, function words, spelling, and phonological processes such as abbreviation, weakening, deletion, and inser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dictation is propos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improve English listening ability. For the upper classes, full dictation is suggested, spot dictation with conversational features for the middle classes, and the spot dictation focusing on minimal pairs is proposed for the lower classes. Finally, various kinds of dictation techniques and materials also should be developed and presented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tudents' abilities.

주제어(Key Words): full dictation, spot dictation, error analysis

## 1. 서론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향상시키는 것이 영어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

\* 본 논문은 2007년 9월 8일 공주대학교에서 개최된 The 1st Korea English Teachers Associations Joint Conference & 2007 ETAK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논문의 수정보완에 귀중한 조언을 주시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세분 심사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한 교육이 균등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구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네 가지 기능 중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능력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기능이다. 청해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외국어 학습 시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능이다. 청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에 긍정적인 전이효과가 높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청해 훈련은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읽기 위주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 1982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듣기능력 평가시험이 전국적으로 연 4회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듣기 문항이 포함되어 실시되었고, 나아가서 1997학년도 시험부터는 17문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2006)을 보면, 수능시험 영어(외국어 영역) 듣기평가 문항을 2010년부터 현행 17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이기로 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듣기 비중 및 현장에서 듣기에 할애하는 수업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음성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EFL환경의 한국 학습자들은 소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취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차경환과 신동일(2001)은 영어 문어체 학습에 익숙한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 영어의 문어체 스타일을 그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은 구어에서 다양한 발음 환경에 따라 발음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무시한 채 사전적인 발음기호 그대로의 소리가 청취상황에서도 들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청취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 구어체의 다양한 발음 현상들을 하나하나 익히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발음 자료를 폭 넓게 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영어의 듣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받아쓰기(dictation)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첫째, 받아쓰기는 듣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훌륭한 척도이다. 받아 써야 할 문장을 정상 속도(normal speed)로 불러주고 받아 써야 할 경우에 이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 쓸 수가 없으므로, 받아쓰기가 올바르게 실시되고, 평가되고, 해석된다면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의 경제성으로 인해 아주 간편하고 유용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 측정 도구가 된다. 둘째, 소리의 인식 측면에서도 볼 때, 듣기를 해야 하는 단위의 범위가 개별 단어 하나가 아닌 연속된 여러 개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연음 등의 이유로 생기는 단어의 사전적 발음과 문장 안에서 사용될 때 발화되는 실제 발음간의 차이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양성우, 2003).

받아쓰기 실시는 한국인 영어교사, 원어민, 오디오테이프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인 영어교사에 의한 발화는 원어민 화자의 강세, 억양, 리듬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정상속도의 영어를 구사하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어민에 의한 발화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원어민을 확보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영어교육 교실환경을 고려해 볼 때 원어민 화자의 음성이 녹음된 오디오 테이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테이프의 활용은 서로 다른 집단의 언어 수행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타당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로 다른 집단의 언어 수행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 오류분석은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형태나 그런 오류가 처리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Corder(1981)에 따르면 교사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오류는 교사에게 학습자가 언어 학습의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알려주고, 학습자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고 언급하면서 오류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받아쓰기를 통한 음운론적인 오류, 형태론적인 오류, 통사론적인 오류 그리고 의미론적인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음운론적 오류만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받아쓰기를 통한 음운오류분석은 김원명(1984)이 영어 학습자의 영어 청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영어 음소 식별 난이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영어청취상의 오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신정숙(2005)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받아쓰기와 부분 받아쓰기 분석을 통하여 자음의 식별, 모음의 식별, 기능어의 약화와 축약, 연음, 그리고 동화의 6가지 듣기 곤란 항목을 추출하여 받아쓰기가 상향과정(bottom-up)을 필요로 하는 철자 테스트뿐만 아니라, 추측, 요점파악 등의 하향 과정(top-down) 훈련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수준(threshold level)에 도달하기까지는 상향식 과정을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받아쓰기가 이런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음운론적 오류를 분석하지 않았

고, 또한 음운 오류들 간에 나타나는 난이도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음운론적 오류분석을 위해 음소인식, 연음, 기능어, 축약·약화·탈락·첨가, 철자법 등 5가지의 오류 유형을 설정하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각 오류 유형 간의 난이도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음소인식과 철자법의 차이는 최소변별쌍(minimal pair)의 오류를 음소인식 오류로 보았고 나머지는 철자오류로 간주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받아쓰기를 통해 들은 내용을 적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난 영어의 음운론적 오류를 분석한 후, 이 오류에 근거하여 청취 수업 시에 집단 간의 수준에 따른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청취지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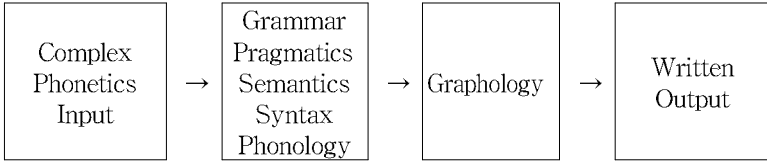
### 2.1 받아쓰기의 정의 및 과정

Oller(1972)는 영어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받아쓰기에 대해 교사가 제공하는 발화문을 학습자가 들으면서 청각상(acoustic image)을 통하여 개념을 구상하고 머리에 심리적 영상을 그린 다음 문자 심상을 통해 글로 옮겨 쓰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임병빈(1995)은 받아쓰기 과정은 음과 철자를 관련시켜 언어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여러 종류의 목소리, 언어 수준, 말의 속도, 조음상의 개인적 특성 및 발음상의 방언 변화에 대한 조정 능력뿐만 아니라 음성적 요소가 불분명하거나 받아쓰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요소가 있을 경우에 해당 답화를 문맥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받아쓰기는 음성언어를 듣고 문자언어로 나타내는 과정으로서 영어 음에 대한 구어적 특성과 음운론적 특성을 인지하고, 답화를 추측하고 이해하는 사고 논리 구조를 통해 문자로 정확하게 재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Oller(1972)는 받아쓰기의 과정을 복합적인 음성적 입력을 받은 학습자가 음소의 구별, 어휘, 문장의 의미 파악, 문법 관계의 인지 등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문자로 출력하는 통합적 활동으로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받아쓰기 과정



## 2.2 받아쓰기의 유형과 효과

Sawyer와 Silver(1972)는 받아쓰기 유형을 받아쓰는 자료의 종류나 길이에 따라서 음소 항목 받아쓰기(phonemic item dictation), 음소 전문 받아쓰기(phonemic text dictation), 철자 항목 받아쓰기(orthographic item dictation), 철자 전문 받아쓰기(orthographic text dictation)로 분류하였다. 철자 전문 받아쓰기란 단락 받아쓰기(paragraph dictation)라고도 한다. 즉 일련의 고립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 통합된 하나의 단락(paragraph)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는 글이 고립된 항목으로 발생하지 않고 문맥단위의 글이 학생들이 갖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Paulston과 Bruder(1976)는 부분 받아쓰기(spot dictation)와 전체 받아쓰기(full dictation)로 나누었다. 전체 받아쓰기는 학습자가 들은 내용을 전부 받아쓰는 것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그 길이를 조절한다면 제 2외국어 작문, 듣기, 음운 식별, 철자 등과 같은 언어 측면에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법이 될 수 있고, 학습자들의 언어 지식 습득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고급 수준의 청취 훈련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였다.

Sawyer와 Silver(1972)는 받아쓰기의 효과는 음을 식별하는 능력, 음과 철자를 연결하면서 바르게 철자하는 능력, 문자의 강세나 억양 관계에 대한 초분절 음소를 식별하여 이해하는 능력, 언어의 지식을 이용하여 계속 전개될 말의 내용을 예측하는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모국어 화자들이 작문을 해나가는 방법과 유사하게 제2외국어의 작문을 해나가는 학습 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Oller(1972)는 이와 함께, 언어숙달을 학습자가 내재화시킨, 심적으로 실재하는 문법능력인 기대문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Morris(1983)는 받아쓰기를 통해, 문장의 길이를 통제하는 능력과 요점(key point)을 떼어내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의미가 통하도록 작은 덩어리(chunk)로 나누어 주의를 하게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듣기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문맥상황을 통해 제대로 듣지 못한 단어들을 이해하는 훈련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Rivers(1981)는 받아쓰기가 외국어 능력 측정 도구로서 가장 유용한 도구이라고도 하였다. Ford(1975)는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받아쓰기의 효과는 모국어 습득의 습관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외국어의 새로운 형태를 정착시키는데 귀중한 연습을 제공해주고, 언어능력을 통합시키는데 적극적인 활동이 되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화자의 정보를 모국어 청자가 청취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청취하는 습관이 정착된다고 하였다. Krashen(1980)은 받아쓰기가 학습자에게 피드백(feedback)효과를 주게 되며, 언어습득에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받아쓰기의 효과를 종합하면 받아쓰기는 청취 이해력을 비롯하여, 필기, 발음, 작문, 문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 2.3 오류분석

1960년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에 바탕을 둔 대조분석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 오류분석(error analysis)이론이 등장하였다(이현구, 2001). 오류분석은 학습자들이 범하게 될 오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해진 오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귀납적인 방법이다. 오류분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학습 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둘째, 학습자들의 오류 중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류분석은 언어간 간섭원인에 의하여 오류가 생겼든 또는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유형의 오류에 대한 기술을 허용해 주므로 대조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박경자, 강복남, 장복명, 1994).

오류분석의 목적은 목표어 학습자들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며, 오류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Corder(1981)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체계적인 오류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교사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오류는 교사에게 학습자가 언어 학습의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알려주고, 학습자에게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둘째, 오류는 언어습득을 하는 학습자들에게 언어가 어떻게

게 습득되어지며 언어 학습 시 학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준다. 셋째, 오류의 발생은 언어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는 장치로 생각하며, 학습자 자신에게 있어서 오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한다.

오류분석에서는 오류를 찾아서 확인하고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 Brown(1980)은 오류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첫째, 수학적 범주(mathematical categories)로서 첨가(addition), 생략(omission), 대치(substitution), 재배열(reordering)

둘째, 언어학적 범주(linguistic categories)로서 음운론 또는 철자법(phonology or orthography), 어휘(lexicon), 문법(grammar), 담화(discourse)

셋째, 형성 단계별(stages)로 체계화 이전단계(the pre-systematic stage), 체계화 단계(the systematic stage), 체계화 이후 단계(the post-systematic stage)

Duskova(1969)는 문법 분류방식을 택하여 형태, 서법동사, 시제, 관사, 어순, 동사, 전치사, 어휘, 구조 등 9가지로 분류하였고, James(1977)는 시제, 부정사, 어순, 주어 동사의 일치, 변형, 어휘, 관사 등 7가지로 분류하였다. 김신영(2004)은 오류범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언어학적 범주(linguistic category), 표면책략 범주(surface strategy taxonomy), 비교범주(comparative taxonomy), 그리고 의사소통범주이다. 언어학적 범주에는 발음, 통사 및 형태 즉 문법, 의미와 어휘, 담화 등이 있다. 표면책략 범주로는 생략, 첨가, 잘못된 형태, 어순의 잘못 등이 속한다. 비교범주는 모국어에서 제 2언어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대적 오류를 분류하는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오류의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오류를 분류하는 분류법으로, 오류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음운오류분석을 위해 Brown(1980)이 제시한 오류의 범주 중에서 수학적 범주와 언어학적 범주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충청남도 A시에 소재한 O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3개 반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듣기평가와 받아쓰기 평가를 통해 연구의 가치가 있는 유효응답을 한 81명을 선정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객관적인 영어실력을 파악하고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12일 실시된 전국 영어듣기능력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받아쓰기 오류분석을 위한 받아쓰기 평가지는 중학생용 읽기 교재에서 발췌하여 제작하였다. 평가문항은 2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짧은 문장일 경우 한 문장이 1문항이 되고, 긴 문장은 절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나누었다. 받아쓰기유형은 전체받아쓰기를 채택하였다. 각 문항의 어휘 수는 최소 3단어~최대 9단어로 이루어졌으며, 총 어휘 수는 중복되는 어휘를 포함하여 132단어이다. 3단어로 된 문항이 6문항이었고, 4단어는 1문항, 5단어는 4문항, 6단어는 5문항, 7단어는 4문항, 8단어는 3문항, 9단어는 1문항이었다. 평가원문 녹음테이프는 미국 원어민 성우가 녹음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벨소리를 두어서 구별하였다. 평가의 취지에 알맞게 구어의 특성이 반영된 미국식 발음으로 녹음되어 있었으며, 문장을 읽어주는 속도는 평가의 대상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임을 감안하여, 정상발화속도인 160~190wpm(words per minute)에 가까운 120~150wpm의 속도로 읽어주도록 녹음이 되어 있었다. 평가의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발음으로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 반복 기능이 있는 디지털 어학기를 E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평가 대상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연결하여 재생하였다. 재생 시의 원음과 반복 시의 재생음의 음질상의 차이는 거의 없는, 무시할만한 수준이었다. 받아쓰기 평가에 사용된 장소는 연구 대상이 다니는 학교의 해당 학급 교실로서 특별한 방음 장치 등은 되어있지 않은 일반 교실이었다.

### 3.2 연구 절차

2007년 4월 12일에 중학교 2학년 전국 영어 듣기능력 평가가 실시하였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대상 3개 반의 학생 102명의 평가 결과를 성취도 단위로 산출하였다. 성취도 결과와 점수에 해당하는 각 반별의 인원수는 표 1과 같다. 전국 듣기능력 평가와는 별도로 각 반별로 받아쓰기 평가를 진행하였다. 받아쓰기 평가는 본 연구자가 현직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충남 A시에 소재한 O여자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N



교사에게 의뢰하여 2007년 4월 13일에 O여자중학교 각 교실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는 진행담당인 N교사에게 평가의 진행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연구자와 함께 모의 진행을 실시한 후에 이루어졌다. 받아쓰기 문제는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자동으로 반복되는 디지털 어학기를 사용하여 평가 시에 각 문항을 5번씩 연속으로 반복하여 재생하였고, 평가는 20분간 진행되었다. 진행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는 동안 들려오는 영어문장이나 절을 최대한 모두 써 넣도록 미리 주지시켰다.

### 3.3 집단 분류

실험대상 3개 반의 전국 듣기능력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집단을 상위집단, 중위집단, 하위집단으로 나누었다. 상위집단은 듣기능력 평가 성취도가 80%이상, 중위집단은 60%~79%, 하위집단은 40%~59%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받아쓰기 평가 결과, 40% 미만 집단의 받아쓰기 응답지는 받아쓰기 오류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듣기 능력에 미달되며, 무응답률이 매우 높고 응답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서, 연구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유효자료집단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무응답으로 제출한 3명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효응답자로 선택하고 수준별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집단전체의 총원 81명 중 상위집단 29명(35.8%), 중위집단 29명(35.8%), 하위집단 23명(28.4%)으로 구성되었다. 듣기 능력 평가 결과와 받아쓰기 평가에 따른 집단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듣기능력 평가와 받아쓰기 평가에 따른 집단 분류표

성취도/반	A반	B반	C반	합계	유효자료	집단 분류
90%이상	7	3	4	14	14	상위집단 29명 ( 35.8%)
80-89%	7	5	4	16	15	
70-79%	4	8	8	20	20	중위집단 29명 (35.8%)
60-69%	3	3	3	9	9	
50-59%	1	8	3	12	12	하위집단 23명 (28.4%)
40-49%	7	1	5	13	11	
40%미만	5	6	7	18	0	
합계	34	34	34	102	81	81명

### 3.4 오류 유형

오류 유형은 구어체 특성을 고려한 음소인식, 연음, 기능어, 축약·약화·탈락·첨가, 철자법 등 5가지의 오류와 부분 무응답 오류로 세분화하였다. 각 오류 유형을 실제 응답한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음소인식 오류는 'fox'를 'box'로 쓰거나, 'road'를 'load'로 써서 자음을 잘못 인식한 경우와, 'went'를 'want'로 모음을 잘못 인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연음 오류를 살펴보면, 'stretched and'를 'stretch than'으로 써서 앞단어의 자음 'd'와 뒷단어의 모음 'a'가 연음되는 경우이다. 기능어의 오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along the road'를 'along a road'와 같이 관사의 오류를 보이거나, 'to eat'를 'do eat'으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축약·약화·탈락·첨가의 오류는 'I don't want'를 'I no want'로, 'walked away'를 'walk away'로, 'I don't want'를 'I don't know want'로 적는 오류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철자법의 오류는 청취자가 제대로 들은 것을 철자로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오류들로서 'two'를 'twe'로 적거나, 'three'를 'thre' 또는 'tree'로 적은 경우, 또는 'stretched'를 'stretched' 등으로 적은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어구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오류 유형을 모두 적용시켰다. 예를 들어 'to eat'를 'do it'로 쓴 경우 기능어의 오류와 음소인식 오류가 각각 적용되었다.

## 4. 연구결과 분석

### 4.1 전체집단의 인원과 응답율

전체집단의 인원비율은 전체 인원 81명 중 상위집단은 29명으로서 35.80%, 중위집단은 29명으로서 35.80%, 그리고 하위집단은 23명으로서 28.98%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2는 전체집단의 응답률을 보여준다. 집단전체 81명의 15문항에 대한 전체응답 건수 1,215건 중 문항에 대한 완전 무응답 건수 138건 (11.35%)을 제외한 유효응답 건수는 1,077건으로 88.49%를 차지하였다. 또한 1,215건 중 문항을 정확하게 받아 쓴 건수, 즉 성공적으로 응답한 건수는 45건으로 3.7%를 차지하였다.

표 2. 전체집단의 인원비율

응답 건수 집단분류	유효응답 N=1,077		완전 무응답 N=138
	성공 응답	부분 무응답	
상위집단 N=435	44 (10.11%)	384 (88.28%)	7 (1.6%)
중위집단 N=435	1 (0.22%)	367 (84.37%)	67 (15.4%)
하위집단 N=345	0 (0%)	281 (81.45%)	64 (18.55%)
부분합계 N=1,215	45 (3.7%)	1,032 (84.94%)	138 (11.35%)

상위집단 29명의 전체문항 응답 건수 435건 중에서 각 문항의 완전 무응답 7건(1.6%)을 제외하면 428건으로 98.39%의 유효 응답률이 발생했다. 또한 435건 중 성공적으로 응답한 건수는 44건으로 10.11%를 차지하였다.

중위집단은 29명으로 435건의 전체 응답 중 유효응답이 369건으로 전체 응답 대비 84.59%를 차지하며, 완전 무응답은 67건으로 15.4%였다. 성공적으로 응답한 건수는 단 1건으로 0.22%이었다.

하위집단은 23명으로 345건의 전체응답 중에서 유효응답은 281건으로 유효 응답률은 81.44%이며, 완전 무응답이 64건으로 18.55%인데 반해 성공적으로 응답한 건수는 0건이었다.

완전 무응답은 오류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효응답 자료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후로 언급되는 무응답은 유효응답자료 내의 부분 무응답을 가리킨다.

#### 4.2 유효집단의 무응답율

실제 음운론적 오류분석을 위해서는 원 자료를 포함하는 전체집단에서 완전 무응답자료를 제외한 유효응답집단 즉 유효집단의 오류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류분석 결과를 통해 유효 집단 전체의 오류순위와 각 집단 간의 오류순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3에서 유효집단의 무응답율은 유효응답 자료를 음운적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며, 실제 오류조사를 위한 응답률은 유효응

답 자료만을 가지고 각 문항의 음운적 단위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었다. 예를 들어 1번 문항은 4개의 어구로 이루어져있고, 3번 문항은 3개, 10번 문항은 5개, 11번 문항은 6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기에서의 무응답은 유효응답 내에서의 부분 무응답을 말한다. 따라서 전체집단은 81명이 각 어구에서 부분적으로 무응답한 어구의 총 건수가 950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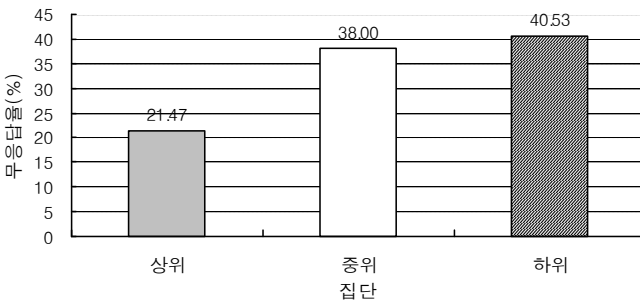
표 3에서 보듯이 상위집단의 무응답에 대한 오류는 204건으로 유효집단 전체의 무응답 950건에 대하여 21.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은 전체 대비 38%와 40.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 전체집단의 응답률

오류유형	상위	중위	하위
무응답 N=950	204 (21.47%)	361 (38.00%)	385 (40.53%)

다음의 그림 2는 앞의 표 3을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상위집단의 무응답률은 21.47%로서 중위집단(38.00%)과 하위집단(40.53%)에 비해 10%이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유효집단 내 각 집단의 무응답률



### 4.3 유효집단의 오류율

상·중·하위 집단의 유효응답 전체 오류 빈도와 오류율은 표 4와 같이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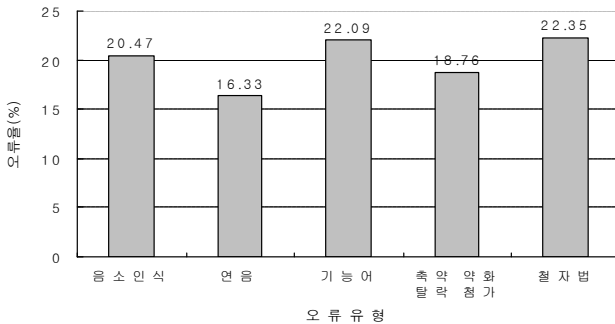
표 4. 유효집단의 오류율

오류유형	오류빈도	전체 무응답	전체오류	오류율(%)
음소인식	417	950	1,367	20.47
연음	141	950	1,091	16.33
기능어	526	950	1,476	22.09
축약·약화·탈락·첨가	303	950	1,253	18.76
철자법	543	950	1,493	22.35
오류총계	1,930	4,750	6,680	100

무응답을 포함한 총 오류 건수는 6,680건이었다. 분석된 5가지 오류유형 중 철자법 오류가 1,493건(22.35%)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능어 오류가 1,476건(22.09%)으로 철자법 오류와 대동소이한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음소인식 오류가 1,367건(20.47%)과 축약·약화·탈락·첨가 오류가 1,253건(18.76%)으로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연음 오류가 1,091건(16.33%)이었다.

그림 3은 표 4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철자법과 기능어 오류가 가장 높고, 그 차이가 0.26%로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소인식 오류와 기능어 오류가 1.62%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축약·약화·탈락·첨가 오류에 이어 연음 오류는 가장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오류유형에 따른 유효집단의 오류율



## 4.3.1 상위집단의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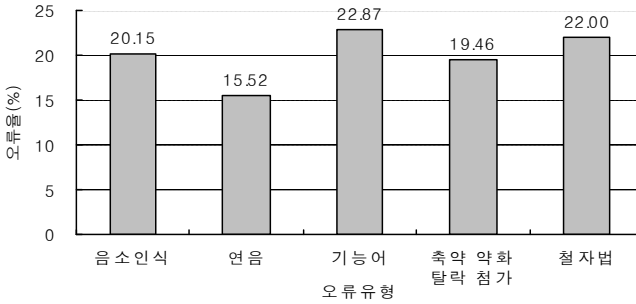
다음의 표 5는 상위집단 내에서 발생한 오류만을 집계하여, 상위집단의 오류 총계에 대한 각 오류유형의 오류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에서 오류 빈도란 각각의 문항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발생한 순수한 오류만을 집계한 것이다. 또한 전체 오류란 순수한 오류와 무응답을 합한 수치이다. 표 5에서 보듯이 무응답을 포함하는 상위집단의 음소인식 오류율은 상위집단의 총 오류 1,727건 중 348건을 차지하여 20.15%를 기록했다. 연음의 오류율은 268건으로 15.52%, 기능어 오류율은 395건으로 22.87건이었다. 축약·약화·탈락·첨가는 336건으로 19.46%, 마지막으로 철자법은 380건으로 22.00%를 기록했다.

표 5. 상위집단의 오류율

오류유형	오류빈도	무응답	전체오류	오류율(%)
음소인식	144	204	348	20.15
연음	64	204	268	15.52
기능어	191	204	395	22.87
축약·약화·탈락·첨가	132	204	336	19.46
철자법	176	204	380	22.00
오류총계	707	1,020	1,727	100

그림 4는 상위집단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을 비교하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오류율 순서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의 오류 중에서 오류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능어 오류로서 22.87%이고, 다음으로 철자법(22.00%), 음소인식(20.15%), 축약·약화·탈락·첨가(19.46%)의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연음의 오류율이 15.52%이었다. 유효집단은 철자법이 가장 많은 오류인데 반해 상위집단 내에서는 철자법보다 기능어 오류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위집단일수록 하위집단보다 철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상위집단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



#### 4.3.2 중위집단의 오류율

다음의 표 6은 중위집단 내에서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중위집단 내에서 발생한 오류만을 집계한 것으로 오류 총계는 타 집단과 다르다. 오류율을 살펴보면, 음소인식 오류 19.93%, 연음 오류 16.71%, 기능어 오류 22.55%, 축약·약화·탈락·첨가 18.71%, 그리고 철자법 오류가 22.1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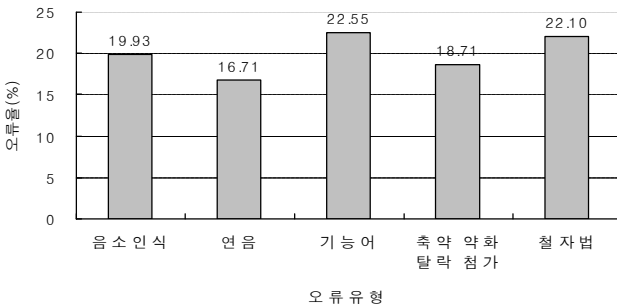
표 6. 중위집단의 오류율

오류유형	오류빈도	무응답	전체오류	오류율 (%)
음소인식	127	361	488	19.93
연음	48	361	409	16.71
기능어	191	361	552	22.55
축약·약화·탈락·첨가	97	361	458	18.71
철자법	180	361	541	22.10
오류총계	643	1,805	2,448	100

그림 5는 표 6을 알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중위집단의 오류율의 순서를 살펴보면, 기능어 오류(22.55%)가 가장 큰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철자법 오류(22.10%), 음소인식 오류(19.93%), 축약·약화·탈락·첨가 오류(18.71%), 그리고 연음 오류(16.71%)의 순서로 되어 있다. 유효집단과 달리 중위집단 내에서는 철자법보다 기능어 오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위집단의 오류율 순위와 같다. 그리고 유효집단의 오류

을 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중위집단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



4.3.3 하위집단의 오류율

다음의 표 7은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한 오류의 빈도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음소인식 오류는 21.20%, 연음 16.53%, 기능어 21.12%. 축약·약화·탈락·첨가 18.32%, 그리고 철자법 오류는 22.83%로 나타났다.

표 7. 하위집단의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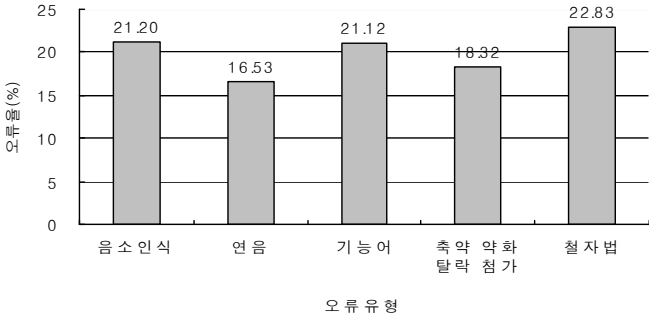
오류유형	오류빈도	무응답	전체오류	오류율(%)
음소인식	146	385	531	21.20
연음	29	385	414	16.53
기능어	144	385	529	21.12
축약·약화·탈락·첨가	74	385	459	18.32
철자법	187	385	572	22.83
오류총계	580	1,925	2,505	100

그림 6은 하위집단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오류율의 순서를 보면, 하위집단 내에서는 철자법(22.83%)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며, 음소인식 오류(21.20%), 기능어 오류(21.12%), 축약·약화·탈락·첨가 오류(18.32%), 연음 오류(16.53%)의 순서로 되어있다. 상위집단이나 중위집단과 달리 하위집단 내에서는 철자법 오류가 더 많음을 보여준



다. 이것을 통해 하위집단의 오류율 순위는 유효집단의 오류율 순위와 같으며, 상위집단과의 비율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하위집단의 오류 유형별 오류율



#### 4.4 유효집단과 각 집단의 오류율 순위

다음의 표 8은 앞의 표 5부터 표 7까지의 표를 취합하여 오류율 순위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8. 유효집단과 각 집단의 오류율 순위

오류율 순위	유효집단 N=6,680	상위집단 N=1,727	중위집단 N=2,448	하위집단 N=2,505
1	철자법 (22.35%)	기능어 (22.87%)	기능어 (22.55%)	철자법 (22.83%)
2	기능어 (22.09%)	철자법 (22.00%)	철자법 (22.10%)	음소인식 (21.20%)
3	음소인식 (20.47%)	음소인식 (20.15%)	음소인식 (19.93%)	기능어 (21.12%)
4	축약·약화 탈락 첨가 (18.76%)	축약·약화 탈락 ·첨가 (19.46%)	축약·약화 탈락 ·첨가 (18.71%)	축약·약화 탈락 첨가 (18.32%)
5	연음 (16.38%)	연음 (15.52%)	연음 (16.71%)	연음 (16.53%)

유효집단 내에서의 오류율 순위를 살펴보면 오류율 1위는 철자법 오류로서 22.35%의 오류율을 보였고, 2위는 기능어 오류로서 22.09%의 오류율을, 3위는 음소인식 오류로서 20.47%, 4위는 축약·약화·탈락·첨가 오류로서 18.76%이며, 연음 오류가 16.38%로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위인 철자법의 오류와 2위인 기능어의 오류율의 차이는 0.26%로서 미미하다.

또한 각 집단 내에서의 오류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집단 내에서의 오류율은 기능어(22.87%)가 가장 높았고, 철자법(22.00%), 음소인식(20.15%), 축약·약화·탈락·첨가(19.46%), 연음(15.5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위집단 내에서의 오류율은 기능어(22.55%), 철자법(22.10%), 음소인식(19.93%), 축약·약화·탈락·첨가(18.71%), 연음(16.7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집단 내에서는 철자법(22.83%)이 가장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음소인식(21.20%), 기능어(21.12%), 축약·약화·탈락·첨가(18.32%), 연음(16.53%)의 순서로 되어 있다.

#### 4.5 결과 및 논의

영어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음운론적 오류분석을 통해 조사된 각 집단의 응답형태에 따른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집단의 완전 무응답율은 1.6%인 반면에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은 각각 15.4%와 18.55%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중위집단과 하위집단 두 집단이 영어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글자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는 반대로 문항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응답의 비율은 상위집단이 10.11%로서 중위집단(0.22%)과 하위집단(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집단이 소리인지능력과 철자법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분 무응답 또한 상위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것 또한 상위집단은 부분 응답을 통해서라도 각 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반면에 중·하위 집단은 불완전한 청취능력 때문에 아예 응답을 포기하여 응답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각 집단의 오류율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은 기능어와 철자법의 오류율이 높고, 하위집단은 철자법과 음소인식 오류가 높다. 이것은 김원명(1984)의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문장받아쓰기에서 영어 음소구별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영어 음운 청취에 영향을 미치는 음소 식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국어에 의한

간섭현상이나 전이에 의한 오류도 많다고 볼 수 있다.

오류율 순위와 오류수준을 함께 살펴볼 때, 상위집단과 중위집단은 비슷한 오류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수준상의 차이가 있으며, 중위집단과 하위집단 사이에는 오류유형의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은 하위집단의 음소인식오류와 철자법 오류가 오류율 1위와 2위를 차지한다고 볼 때 청취능력 부족과 그나마 들은 내용을 철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응답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청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듣기 비중 및 현장에서 듣기에 할애하는 수업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음성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EFL환경의 한국 학습자들이 소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청취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사전적인 발음기호 그대로의 소리가 아닌 구어에서 다양한 발음 환경에 따라 발음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어 구어체의 다양한 발음 현상들을 직접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발음 자료를 폭 넓게 접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학생들이 어떠한 청취상의 오류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청취지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중학교 2학년 3개 반 10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듣기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중·하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하는 이유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처음 받는 신입생으로 동일하게 1년 이상을 이미 수업 받은 2학년에 비해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음운론적인 특징이 있는 이야기 한 편을 선정하여 문장 또는 절로 구분된 24문항의 오류분석용 받아쓰기 평가지를 제작하고, 받아쓰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받아쓰기 평가지를 수거하고,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효자료만을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나타난 오류를 조사하여 음운론적 오류 중에서 구어체 특성을 고려한 음소인식, 연음, 기능어, 축약·약화·탈락·첨가, 철자법 등 5가지의 오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공통된 오류와 집단 간의 오류의 차이를 분석하여, 각

집단 간의 청취 지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위집단은 기본적인 소리인지능력이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기능어에 중점을 두면서 철자법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취이해능력을 길러주는데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위집단은 상위집단과 오류유형은 비슷하지만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상위집단과 비슷한 방법으로 지도하면서 오류율을 낮춤으로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어의 오류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하위집단은 기초적인 듣기 능력인 소리 인지능력이 부족하므로 철자법과 음소인식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EFL 상황에서는 영어소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므로, 노출량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상위 집단, 중위집단, 그리고 하위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수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듣기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듣기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이재희(1994)가 제안한 EFL 학습자가 영어 듣기를 배울 때 겪는 5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제1단계는 소리의 흐름(stream of sounds)을 인식하는 단계, 제2단계는 들려오는 말의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해(minimal comprehension)가 이루어지는 단계, 제3단계는 들려오는 말에 대한 약간의 이해(marginal comprehension)가 이루어지는 단계, 제4단계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능적 측면에서 적어도 최소한 이해(functional comprehension)를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특정한 토픽에 대한 자연스런 말을 전반적으로 이해(general comprehension)하는 단계이다.

셋째, 듣기평가 및 받아쓰기를 통한 청취능력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반 편성 및 수업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음운론적 오류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받아쓰기에서 나타난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 혁신방안.

- 김원명. (1984). 영어 청취 오류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영. (2004). 과제 유형에 따른 중간언어에 대한 변이성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자, 강복남, 장복명. (1994). *언어 교수학*. 서울: 박영사.
- 신정숙. (2005). 중학생의 받아쓰기 과정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성우. (2003). 청크(Chunk)별 역행연습과 듣기학습.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희. (1994). 국민학교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및 평가 모형. *영어교육*, 48, 189-208.
- 이현구. (2001). 대학 영어작문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오류 분석. *현대영어교육*, 2(2), 239-253.
- 임병빈. (1995). *영어교육 평가*. 서울: 시사문화사.
- 차경환, 신동일. (2001). *영어 청취론*. 서울: 한국문화사.
- Brown, H. D.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 Corder, S.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skova, L. (1969). On sources of error in language learning. *IRAL*, 7, 35-79
- Ford, J. M. (1975). The Place of Dictation. In W. H. Alan (ed.), *Handbook for Modern Language Teachers*. London: Methuen Educational.
- James, C. (1977). Judgments of error gravit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31.
- Krashen, S. D. (1980). Bilingual educ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Cumulus (ed.), *Schooling and language minority students*, A theoretical frame work.
- Morris, B. A. (1983) Dictation: A technique in need of reappraisal. *ELT Journal*, 37, 121-126
- Oller, J. W. Jr. (1972). *Dictation as a test of ESL proficiency*. New York: McGraw Hill.
- Oller, J. W. Jr. (1976). Language Testing Today. *English Teaching Forum*, 6, 24.
-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 Techniques and Procedures*.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Sawyer, J. O., & Silver, S. K. (1972). Dictation in language learning,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 H. B. Allen, & R. N. Camp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nd ed.)*. New York: McGraw Hill.

부록 1 전국 중2 영어듣기능력 평가지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 주관 영어듣기 능력평가(중2)  
 2007. 4. 12(목) 시행 제2학년 반 번 이름

1. 다음을 듣고, 내일의 날씨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sunny      ② rainy      ③ windy      ④ cloudy

2. 대화를 듣고, 여자의 장래희망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승무원      ② 조종사      ③ 영화배우      ④ 영화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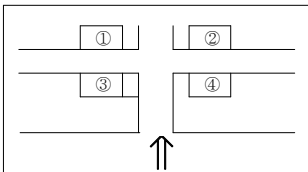
3. 다음을 듣고,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인지 고르시오.

- ① 세탁기                                      ② 청소기  
 ③ 식기세척기                                ④ 자동판매기

4. 대화를 듣고, 여자가 마지막에 한 말의 의도를 고르시오.

- ① 사과      ② 충고      ③ 감사      ④ 축하

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찾는 곳을 고르시오.



6. 대화를 듣고, 남자가 좋아하는 영화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 ① 공포 영화                                ② 액션 영화  
 ③ 코미디 영화                               ④ 공상과학 영화

7.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한 목적을 고르시오.

- ① 친구 초대      ② 약속 취소      ③ 진료 예약      ④ 주소 확인

8. 대화를 듣고, 현재 시각을 고르시오.

- ① 6:00      ② 7:00      ③ 8:00      ④ 9:00

9.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게 될 일을 고르시오.

- ① shopping                                ② swimming  
 ③ watching TV                              ④ playing tennis

10. 대화를 듣고, 자연스럽게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11. 대화를 듣고, 여자의 생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① 12일                      ② 14일                      ③ 21일                      ④ 28일

12.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하게 될 금액을 고르시오.

- ① \$10      ② \$13      ③ \$15      ④ \$18

13. 대화를 듣고, 남자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슬프다      ② 초조하다      ③ 지루하다      ④ 실망스럽다

14.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bank      ② library      ③ hospital      ④ restaurant

15. 대화를 듣고, 남자가 사게 될 선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시계      ② CD      ③ 손수건      ④ 요리책

16. 다음 그림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화를 고르시오.



- ①                      ②                      ③                      ④

17.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① 교사 - 학생                      ② 의사 - 환자  
③ 운전기사 - 경찰                      ④ 수리기사 - 손님

18.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① 호텔에 머물고 있다.  
② 금요일에 관광할 것이다.  
③ 친구와 함께 관광할 것이다.  
④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탈 수 있다.

[19 ~ 20]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9.

- ① Go ahead.  
② Good for you.  
③ Don't mention it.  
④ That's a good idea.

20.

- ① Cheer up.  
② You're welcome.  
③ I'm sorry to hear that.  
④ You can say that again.

## 부록 2 받아쓰기 평가 답안지

이 조사는 여러분의 받아쓰기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며, 약 20분간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각 번호의 문장을 5번씩 연속하여 듣게 됩니다. 벨소리는 각 번호의 문장이 끝난 것을 알려줍니다. 들은 내용은 빈칸이 없도록 빠짐없이 쓰도록 합니다.

중학교    학년    반    번    성명: \_\_\_\_\_

번호	내용	어휘수
1	One day a fox was walking along the road.	9
2	He was hungry.	3

3	He wanted something to eat.	5
4	Just then he came to a vineyard.	7
5	"Grapes!" he thought.	3
6	"I love grapes!"	3
7	He went into the vineyard,	5
8	and looked up at the grapes.	6
9	They looked delicious.	3
10	But the grapes were very high.	6
11	The fox stood up on his hind legs.	8
12	He could not reach the grapes.	6
13	He stretched and stretched his neck.	6
14	But the grapes were still too high.	7
15	Then he jumped.	3
16	One, two, three, four, five times he jumped.	8
17	But he could not reach the grapes.	7
18	Finally the fox became tired and walked away.	8
19	"Oh well," he said.	4
20	"I don't want those grapes."	5
21	"They look delicious,	3
22	but I'm sure they're sour."	5
23	Sometimes we say that something is bad	7
24	just because we can't have it.	6

- 수고하셨습니다. -

이현구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

나사렛대학교 영어학과

전화: (041)570-7965

E-mail: hglee@kornu.ac.kr

윤병남

충남 천안시 쌍용2동 한라동백@ 102-304

전화: (041)902-2669

E-mail: jeffrey@chol.com

Received: 30 September, 2007

Revised: 26 November, 2007

Accepted: 5 December, 2007